

사회 첫발을 내 딛는

간호원 여러분에게

洪 淳 哲

<백화여고 양호교사>

『看護學의 결코 화려한 學問은 아닙니다. 이는 서서히 時間을 태우며 사는 가운데 高潔함과 淸操함이 내어 배는 아름다운 學問임을 3年 혹은 4年을 이 길에서 공부하며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現代라는 거대한 물결의 소용돌이는 온통 意味를 志向하는 意志(Will to meaning) (Viktor Frankl; 精神科醫師, 心理學者의 주장)로 출렁이는 느낌이 듭니다.

美國의 教育學者 피닉스(Phillip H. Phenix)도 人間은 本質的으로 意味(meaning)를 경험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창조물 이고 人間의 存在는 그가 지닌 意味의 有形에 따라 판정 지어 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看護學을 마치고 社會에 첫 발을 내어 딛는 여러분을 대하여 나는 니체(Friedrich W. Nietzsche! 哲學者 1844~1900)가 이야기 하고 아돌러(Alfred Adler; 精神科醫師, 心理심층學者 1870~1937)가 주장한 權力을 志向하는 意志(will to power)에 대하여 문득 生覺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權力을 志向하는 意志란 다른 사람을 정복하려는 정치성을 지닌 問題와는 달리 우리가 日常生活을 영위 하면서 파생 되어 지는 “너”와 “나”의 문제 혹은 “우리”와 또 “다른이”들과의 문제에 있어서 無視되고 싶지 않고 認定 받고 싶어지는 心理를 지닌채 살아 간다는 이야기로 의식 혹은 무의식 속에서 權力의 意志를 정신의 기본으로 한다는 意味를 지닙니다.

수 많은 學問중 유독 世上에서 별로 脚光을 받고 있지도 認定을 받고 있지도 않는 看護學을 택하여 공부하는 여러분의 고운 意志를 진심으로 아끼고 싶은 심정 입니다.

看護學은 결코 화려한 學問은 아닙니다. 이는 서서히 學問을 태우며 사는 가운데 高潔함과 淸操함이 내어 배는 아름다운 學問임을 3年 혹은 4年을 이 길에서 공부하며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처음 看護學을 공부하려 하였을 때의 新鮮하였던 여러분의 로부는 늘 그 처럼 화사하고 산뜻한 것은 아니었을 것으로 짐작 됩니다. 病室 혹은 寢習室, 寄宿舍 어느 모퉁이에서 이즈러져 채색된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 지기도 하였겠고 때로는 의분 처럼 솟아 오르는 보람. 같은 소중한 마음의 경험도 있었으리라 生覺됩니다. 그리고 의연히 일어 서서 힘껏 내어 딛는 目標를 向한 힘찬 意志의 발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存在하고 이야



기 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 되어 진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은 看護界의 知性일뿐 아니라 우리 나라의 知性人 입니다. 知性人을 풀이하여 文化論에서 「김병익」씨는 自己를 부정하며 生覺하면서 行動하는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意味에서 看護學 만큼 知性에 相當한 學問도 없으리라 生覺됩니다.

人間의 意識은 어떤 단계 같은 것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形態인지 확실히 구분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걸어온 자취를 生覺하던은 Adler가 주장한 will to power의 實跡 어디쯤인가 우리의 學問이 걸려 있는 상태는 아닌지? 아니면 좀더 저쪽 認定을 받는다든 한계에선 벗어난. 그리고 지금 하늘을 向하여 활짝 날개를 펼 상태로 도사린 모습은 아닌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生의 意味를 지닌채 사는 人間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니체」의 이야기는 인상적입니다.

가장 完全한 看護員의 像에 대하여 生覺해 본적이 있습니까? 이를 完全한 人間像에 두어도 좋습니다.

이따금씩 완숙된 人間의 마음을 빛(Color)으로 표현 한다면 무슨 빛이 될까? 불 생각 합니다. 그리고 “보라빛”의 image는 무척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따뜻한 감정의 색과 차거운 理智의 빛의 融合 때문 입니다. 우리의 원하는 人間像이 차거운 理智의 하늘빛을 닮아야 하는지 아니면 뜨거운 感情의 붉은 빛을 닮아야 하는지? 人間의 生命을 다루는 우리의 위치에선 어느 한편을 택할 수는 없는 完全을 向한 것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完全이란 우리가 원하는 어떤 目標에 頂點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졸업을 하고 世上에 첫 발을 내어 디는 여러분께 나는 많은 사람이 時間이 없고 바쁘다는 이유로 가장 소중한 것 들로부터 조금씩 멀어져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돌아 보지 않는다는 것은 意味를 찾지 않고 사는 것에 해당됩니다. 意味를 志向하는 躊躇없는 意識의 흐름은 “나”를 형성하는 지침이 됩니다. 自己 나름대로의 生의 意味를 찾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흐트러지기 쉬운 生입니다.

事物에 意味를 부여하며 산다는 것은 詩처럼 아름다운 生을 살 수 있는 것이라 생각 됩니다. 現代라는 거센 물결위에 놓여진 우리 모두의 意識속엔 흔들리지 않는 뚜렷한 가치관(價値觀) 설정이 必要합니다. 그것이 인류를 위한 봉사의 정신이던 學問 연구의 길이던 확고한 것이기를 나는 감히 바라고 있습니다. 처한 곳이 어느 곳이던 상관할 바 없습니다. 나를 닦고 키우고 차곡 차곡 공들여 나의 城을 쌓아 올려야겠습니다. 하나 하나 정성이 깃든 城은 비 바람에 무너지지도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流行처럼 변하기 쉬운 화려한 脚光是 험사리 스쳐 옮겨 갑니다. 어제의 看護界보다 오늘의 看護界는 확실히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의 裏面에는 선배들의 숨은 노력이 結晶처럼 엉기어 풀어지지 않고 빛나는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意志의 등불엔 어떤 소중한 意味를 부여 하겠습니까? 그것이 곧 “왜 사는것”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詩와 같은 것이라면 좋겠습니다.

사랑스런 여러분의 눈동자가 슬기와 증지로 빛나는 날! 그날이 우리 看護界도 함께 빛나는 날이 되리라 생각 하면서 환영의 말을 대신 합니다.